

November 2015

MorningCalm





파리는 지금 한국의 미 감상 중

프랑스 국립장식미술관에서 한국 현대 예술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한국!>전이 파리에서 개막했다.

PARIS CALLING

The Musée des Arts Décoratifs has turned the spotlight on contemporary Korean art,
and Paris has fallen in love with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파리 리블리 가(街)에 한국의 태극기가 높이 휘날리고 있다. 2016년 1월 3일까지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서울에서 곧바로 날아온 한국 현대 예술 트렌드를 목도할 수 있다. 프랑스 국립장식미술관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금, 한국!> 전시회는 공예, 패션,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한국 관련 해외 전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시다.

전시 장소인 국립장식미술관의 기원은 수집가들이 공예 미술을 알리기 위해 협회를 설립한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프랑스 전역에 걸쳐 예술 관련 파트너십을 조직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는데, 이번 <지금, 한국!>전을 통해서도 한·불 양국 간에 문화적인 새로운 유대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시회는 '공예 디자인' '패션' '그래픽 디자인' 등 총 3가지 주제로 나뉜다. 먼저 한국의 디자인과 공예품이 주를 이루는 공예 디자인 분야는, 미술관 입구 우측에 위치한 홀에 전시돼 있다.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전통 옷칠의 대가 정해조의 작품 '오색광율(五色光律)'이다. 그 뒤로 설치작가 이성근이 금속 선과 실리콘으로 만든, 조명 같기도 구름 같기도 한 작품이 우아하게 떠 있다. 그사이로 100여 명의 디자이너 작품 890여 점이 전시돼 아직 유럽이 온전히 알아보지 못한 한국 문화의 정수를 소개한다. 공예 디자인 전시는 옷칠, 한지, 나전 등을 통해 한국의 가구, 도자기, 보석 및 금속공예를 보여주고, 이어 조화미의 극치라 할 전통 한옥 구조물로 마무리된다.

Korean flags are flying high at the entrance of the Musée des Arts Décoratifs on the glitzy Rue de Rivoli. Until January 3, 2016, visitors will be able to discover all the latest trends straight from Seoul. Organized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Korea Now!* is the largest showcase of all things Korean ever presented overseas, ranging from fashion to craftsmanship. It is a great way to celebrate the 1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The museum's origins can be traced back to 1882, when a set of like-minded art collectors joined up to promote the arts. Its goal has long been to create art-inspired partnerships throughout French society. With the *Korea Now!* exhibition, it is going beyond this goal to create new cultural ties between Korea and France.

The exhibition covers craft and design, fashion and graphic design. The former comprise the lion's share of the exhibit and are housed in the nave to the right of the museum entrance. Visitors are in for a colorful welcome, greeted by the artwork of Chung Hae-cho — a true master of lacquer. In the background, Lee Sung-keun's installation, a series of flamboyant clouds of metallic threads and silicon, floats gracefully above everything else. In between, the works of some 100 designers are on

균형의 미학 기능과 소재에 상관없이 장식미술관 지붕 아래 전시된 모든 작품은 전통과 혁신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멋지게 공유한다. 전 클레이아크미술관장 임미선 씨와 함께 공예 디자인 색션의 공동 큐레이터를 맡은 카린 라크망은 전시 작품들에서 현대성이 전통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채 전통이 폭넓게 재생되고 재해석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전통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전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공예와 디자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디자이너들이 전통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한 세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송승용 작가의 ‘오브젝트 O’ 의자를 보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를 재현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죠. 작가는 한지를 이용해 전통과 실험적 디자인의 훌륭한 결합을 보여줍니다.” 라크망의 평이다. 이 의자는 앉으면 커다란 한지로 만든 구(球) 속에 감싸이게 된다.

전시 참가작가들의 강점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재해석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다. “제 작품은 한국 전통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원시적이고, 전복적이기까지 한 ‘구전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통영누비 공예가인 조성연 씨와 함께 ‘U: 오리발 내밀기’를 출품한 이슬기 작가의 말이다.

박원민 작가도 “미술의 영향력은 지리적인 것을 넘어서다”며

show with over 890 artifacts displaying the best of a culture that has yet to be fully recognized in Europe. The journey of discovery takes visitors from *otchil* (lacquerwork) and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to *najeon* (mother-of-pearl inlay) and finally leads them inside a minimalistic version of a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

Regardless of their function and the materials used, all the objects showcased under the Arts Décoratifs’ roof seem to be beautifully suspended between tradition and innovation. Karine Lacquemant, cocurator of the design section along with Rheem Mi-sun, points out how modernity does not clash with tradition in these works. On the contrary, the latter is widely reclaimed and readapted.

“Koreans have this saying which sums up things pretty well: You need to know the past to make things in the present,” Lacquemant say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ition is not only the strength of this exhibition but also of Korean crafts and design. The artists are aware of the fact that knowing their own roots is the only way to build their future identities,” she continues. “Take Song Seung-yong and his *Object O* chair,” which allows those who sit on it to be enveloped by a sphere of hanji. “The idea is to reproduce a secret hiding place, reminiscent of childhood, and he achieves that by using hanji, thus integrating tradition into experimental design.”

The strengths of the featured designers go beyond the bond with their own country, though. “I don’t consider my work in terms of Korean heritage but rather in terms of oral culture — primitive, instinctive, even subversive,” says Lee Seul-gi, who is presenting *U: Show a Duck’s Foot (=Lie)* along with Cho Seong-yeon. “I feel the influences go beyond geography,” Park Won-min echoes. His *Haze Series* chairs and table, made by mixing opaque colors with resin, have simple forms that seem to invite onlookers to slip into a meditative state.

프랑스 국립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지금, 한국!) 전시회의 출품작.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옥 내부(왼쪽). 가구 디자이너 최병훈의 작품 ‘잔상’ (오른쪽 페이지).

The craft and design part of the *Korea Now!* exhibition concludes with a modernized *hanok*, a traditional Korean house (left). Works from Choi Byung-hoon’s *Afterimage* series are shown (opposite).





동감을 표시했다. 레진 소재와 반투명 색상을 결합한 그의 ‘헤이즈 시리즈’ 의자와 테이블은 보는 이로 하여금 명상에 빠져들게 하는 듯한 단순미가 특징이다.

최병훈 작가는 자신만의 창작 철학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최병훈 작가의 ‘잔상’ 시리즈는 상상과 명상의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는 여정이다. 그는 “수십 년간 자연 세계와 명상의 상태를 결합해왔다”며 “절제를 통해 내면의 고요함으로 떠나는 여행은 관객에게 스스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한다.

한국의 창작적인 파란(波瀾)은 유럽 현지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임에 틀림없다. 올리비에 가베 프랑스 국립장식미술관장은 한국의 예술이 지대한 영감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디자이너들도 이미 한국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에서 한국은 무척 빠른 속도로 뜨고 있고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면 새로운 시장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소장 가치가 높은 한국의 디자인과 공예 작품은, 지금까지는 꽤 매력적인 가격으로 소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런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 공동 큐레이터 라크망은 “내가 수집가라면, 한국 디자인 작품을 사겠다”고 잘라 말했다. 예술 애호가라면 솔깃할 법한 얘기다. ● 글 사진 마리안 세라

THE ART OF BALANCE Artist Choi Byung-hoon has developed his own philosophy of creation. His *Afterimage* series is a journey into a mysterious world of imagination and meditation. “For some decades now, I have combined the natural world with the meditative state. The journey towards the silence of my inner world through moderation also provides the viewers with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ir own inner existence.”

Korea’s creative ferment is engaging for art enthusiasts. Olivier Gabet, director of the museum, recalls his impressions of the energy and dynamism of Seoul. “It’s a highly inspirational world,” he says. “French designers are already seeking their inspiration there. Korea is rapidly becoming a hot spot for the arts.”

When a new trend is born, a new market follows. Korean crafts and design are appetizing and yet affordable, but probably not for long. As Lacquemant says, “If I was a collector, I would buy Korean design.” Buyers, you have been notified. ● Text and photographs by Marianne Serra